



石油危機는 끝났는가

金 乾 洽

(대한석유협회 홍보실장)

석유위기가 발생하는 조건은 두가지가 있다. 첫째는 에너지수요, 특히 석유수요가 높은 수준에 있거나, 증가추세를 보이는 상황이고, 두번째는 경제외적 조건, 다시 말해 정치적·군사적 조건에 의해 석유공급의 상당부분이 저해받는 상황의 발생이다.

이 두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경우 석유위기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지난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통해 실제로 경험한 바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사는 제3차 석유위기가 과연 발생할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인데, 최근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아 그 가능성의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최근의 국제석유정세로 볼 때 에너지수요, 특히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 호르무즈해협의 봉쇄등 여러가지 불안요인들을 고려하더라도 석유공급이 대폭 감소되거나 저해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들 두가지 조건 가운데서 제1의 조건, 즉 앞으로 석유수요가 증대할 것인가, 아니면 정체를 계속하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 장래예측에 있어서 기본적인 문제이다. 왜냐하면 제2의 조건, 다시 말해 경제외적 조건에 의해 석유공급이 저해받을 수 있는 문제는 우연적 변수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론적 예측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現油價 유지의 포기」 결정에 따른 원유가격의 하락추세를 감안할 때, 당분간 석유위기의 가능성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OPEC총회는 OPEC회원국들이 지난 4년간 유지해온 油價방어정책을 포기하고 OPEC의 세계 석유시장 점유율을 고수기로 결정했다. 그후 歐美 주요석유 시장에서는 원유의 先物 및 現物가격이 폭락하는 등 油價체계의 붕괴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OPEC가 油價유지정책을 포기한 것은 지난 60년이 기구가 창설된 이래 최대의 정책전환으로 풀이되고 있다. OPEC는 油價유지정책을 포기하면서 英國을 비롯한 멕시코, 노르웨이, 이집트 등 非OPEC산유국들에게 그들의 시장중 일부를 OPEC에게 양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OPEC와 非OPEC산유국들간에 본격적인 石油戰爭이 시작됐다.

그동안 수세에 몰려 고전하던 OPEC가 油價하락의 책임을 非OPEC산유국들에 전가하고 이제는 英國을 중심으로 하는 非OPEC산유국들의 태도여하에 따라 세계석유시장이 안정될 수도 있고 붕괴될 수도 있다는 비장한 결의를 하게 된 것이다.

OPEC가 이 같이 사실상 마지막 카드를 빼들게 된 것은 非OPEC산유국들의 산유량확대 및 석유의 低價판매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기 때문이다.

OPEC의 전체 산유쿼터는 하루 1천6백만배럴이나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쿼터를 초과해 석유를 생산함으로써 현재의 생산량은 하루평균 1천8백만배럴을 넘고 있다. 선진국들의 경기침체 및 대체연료개발, 에너지절약기술개발 등 제반요인이 겹쳐 세계석유수요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 반해 非OPEC산유국들의 생산이 늘어남으로써 상대적으로 OPEC의 시장점유율은 축소될 수 밖에 없었다. OPEC는 제1차 석유위기가 발생했던 73년에 세계 원유생산량의 70%를 지배하는 막강한 독점력을 구사했으나, 84년에는 30% 수준으로 감퇴, 지배력을 상실했다.

OPEC산유국들이 失地회복을 위해 가격전쟁을 벌이는 경우, 油價는 배럴당 20달러선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으며, 아마니 사우디石油相은 15달러선까지 내다보고 있다. 또 美國의 뉴욕타임즈는 『앞으로 油價가 10달러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油價 1백달러시대를 우려하던 경기가 이제는 10달러시대를 예고하게까지 되었으니 변화치고는 엄청난 변화다.

지난 77년 美國CIA를 비롯한 석유메이저들의 전략적인 지침에 의해 오도된 각종 연구보고서들은 석유위기가 한창이던 당시의 위기감을 한껏 고조시키면서 『어느 시기에 가면 배럴당 1백달러를 주고도 물량 확보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그래서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는 소비국들은 한때 값은 고하간에 원유도입선의 안정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석유의존도를 급격하게 축소시키는 등 경직된 脫石油의 에너지정책을 수립, 실시했었다.

이는 앞으로 에너지정책 추진에 있어서 거울로 삼아야 할 좋은 경험이라 하겠다.

그러나 OPEC의 강경태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油價경쟁은 무한경쟁이 아닌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고, 인하폭도 3~4달러선에 그칠 것이라는 일부 분석가들의 견해도 있다. 이번 OPEC의 「시장점유율유지」 결정이 그동안 OPEC의 시장을 잠식해 온 非OPEC산유국에 대한 견제가 그 목적이며, 따라서 쌍방에 모두 불리한 무제한적인 油價인하 경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油價가 폭락할 경우, OPEC산유국들이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며,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대체무산유국들의 외채문제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석유회사에 貸出이 많은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도산위험성도 따른다는 점 등에서 OPEC나 선진국들이 다같이 油價폭락을 실제로 원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 非OPEC산유국은 OPEC산유국에 비해 산유코스트가 높아 적극 경쟁은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즉 사우디 원유의 생산코스트가 배럴당 50센트 정도인데 비해 北海원유(英國)는 5~8달러로 非OPEC측이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 생산량과 가격에 대해 일정한 질서형성에 응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국제석유시장 판도는 산유국들이 치열한 눈치싸움을 보이는 가운데 상당기간 유가하락세를 보이다가 20달러선 부근에서 다시 반등하는 등 기복을 보일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아직은 속단을 불허하지만, 이때까지 세계석유시장의 「帝王」으로 군림하면서 석유가격을 좌지우지하던 OPEC의 기세가 꺾이고, 기름값이 떨어진다 는 소식은 세계경제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원유가격이 내리는 폭만큼 국내유가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데에 심각한 고민이 있다.

동자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석유사업 기금의 부담을 낮추어 정유사의 換差損을 메워준 이후에 다시 환율이 4.9%나 올라 약 6%의 국내유가 인상요인이 생긴 반면, 지난 10월까지의 원유도입복합단가는 올 4월의 27달러 57센트에서 26달러 70센트로 87센트(인하요인 약 3.3%) 내렸고, 국제금리의 하락으로 약 1.2%의 인하요인이 생겨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1.5% 가량 인상요인이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表-1〉自由世界 石油需給¹⁾ 추이 및 전망

(單位: 萬B/D)

	1983	1984	1985			1986		
	(OECD)	(OECD)	OECD	WEFA	IEA	OECD	WEFA	IEA
消 費								
O E C D	3,390	3,460	3,470	2,939	3,400	3,570	2,957	3,370
O P E C	300	320	320	451	} 1,160	320	468	} 1,170
非產油開途國	830	820	840	912		850	931	
其 他 ²⁾	-60	-10	-10	0		0	0	
計	4,460	4,590	4,620	4,302	4,560	4,740	4,366	4,540
供 給								
O E C D	1,600	1,660	1,710	1,705	1,730	1,710	1,704	1,740
O P E C	1,880	1,890	1,830	1,562	-	1,930	1,619	-
對共產圈純輸入	170	180	180	102	} 1,120	180	115	} 1,150
其 他 ²⁾	810	860	900	933		920	928	
計	4,460	4,590	4,620	4,302	-	4,740	4,366	-

註: 1) NGL 포함.

2) 在庫變化, 통계상 不一致 포함.

〈資料〉 OECD, OECD Economic Outlook, June 1985.

WEFA,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85.

IEA, Oil Market Report, Nov. 1985.

〈表-2〉OPEC의 產油量, 생산한도 및 생산능력

(單位: 萬B/D)

	產 油 量					生産限度	生産能力 ¹⁾
	1983	1984	1985. 3	1985. 6 ¹⁾	1985. 11 ¹⁾		
사 우 디	509	465	384	242	430	435	880
이 란	243	219	220	220	230	230	300
이 라 크	101	120	120	137	170	120	170
쿠 웨 이 트	108	112	109	92	90	90	230
U. A. E.	115	116	126	112	125	95	213
카 타 르	30	40	31	30	...	28	50
베 네 수 엘 라	179	181	167	167	156	156	250
나 이 지 리 아	124	139	170	110	170	130	180
리 비 아	108	107	100	97	120	99	150
인 도 네 시 아	139	147	130	102	...	119	170
알 제 리	68	64	65	60	66	66	80
가 봉	16	15	15	15	...	14	20
에 콰 도 르	24	24	28	25	...	18	30
O P E C 計	1,760	1,749	1,630	1,408	1,750~1,800	1,600	2,723

註: 1) 推定値임.

2) 최대지속가능 生産能力(maximum sustainable capacity)임.

〈資料〉 PIW,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各號.

AP-DJ.

〈表 - 3〉 展望機關別 OPEC 平均公示價 추이 및 전망

(單位: \$ / B)

	1983	1984	1985	1986	1987
D R I	29.56	28.58	27.49	25.63	23.85
W E F A	29.83	29.09	27.62	26.65	26.74
N I E S R	27.75	28.86	28.28	28.85	-

〈資料〉 DRI, European Review, Oct. 1985.
 WEFA, World Economic Outlook, Oct. 1985.
 NIESR,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Aug. 1985.

우리 국내경제로서는 油價의 저수준안정이 크게는 플러스작용을 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中東으로부터의 건설자금 수입위축 및 未收, 마두라, 北에멘유전개발투자의 낭패 등의 직접영향과 세계경제질서 재편성에서 오는 간접영향이 예기치 않게 클 수도 있을 것 같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여러 측면의 逆오일쇼크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低油價시대에 대응한 에너지정책의 재점검, 특히 석유의 경쟁력 부활에 따른 연료·에너지소비구조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에너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라 하겠다.*

□ 海外石油流通業界동향 □

日本석유유통업체 체질강화 서두르고 있다.

日本석유업체는 주유소결제방식의 카드화등 계열주유소의 체질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日本석유회사들은 최근 신용판매 회사와의 제휴로 크레디트카드의 이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생명보험판매, 주유소 병설점포를 건설하여 자동차관련용품을 판매하는등 유통부문의 경영을 다각화하고 있다.

昭和 쉘石油은 최근 신용판매 업계의 최대회사인 日本信販과 제휴, 내년 1월부터 제휴크레디트카드의 일반회원을 모집키로 하고, 이미 사원, 특약점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마쳤다. 昭和 쉘石油은 우선 실시 첫해인 86년에 약 1백만명의 회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 카드는 同社계열 주유소와 日本信販 가맹점에서 이용하는 더블카드로 주유소의 대금회수에 소요되는 인력과 경비를 절감시키며, 불량채권 발생시의 위험부담을 해소함으로써 주유소를 경영하는 특약점의 체질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日本石油은 내년 4월부터 계열주유소를 통해 IC (직접회로) 카드에 의한 결제시스템의 실험을 시작한다. 이것은 현재 住友은행 등이 東京 練馬區에서 실시하고 있는 뉴미디어 서비스프로젝트에 참가 카드결제에 의한 주유소경영개선의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IC 카드를 이용할 경우, 휘발유 등을 판매한 시점에서 카드소유자의 은행예금잔고에서 대금을 공제하는 것으로 불량채권발생을 방지해 준다. 또 共同石油과 大協石油도 제휴 크레디트카드제를 도입, 회원수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日本석유업체는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상품

의 다양화도 추진하고 있다. 昭和 쉘石油은 석유의 收入의 확대를 위해 지난 10월에 네덜란드 최대의 생명보험회사인 내셔널·네덜란드社와 업무제휴, 내년 봄부터 계열주유소에서 생명보험을 판매키로 했다.

또 出光興産은 자동차관련용품의 판매와 차량정비를 해주는 주유소 병설점포를 늘려나가고 있다. 併設店은 현재까지 4백개소를 넘어섰으며, 오는 연말까지 6백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1천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주유소에서 판매정보를 고객서비스 향상으로 연결시켜 省力化를 촉진할 수 있는 POS (판매시점정보관리) 단말기를 도입하고 있다. 出光興産은 올해부터 계열 中大型주유소에 온라인형·POS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日本석유회사들이 판매강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앞으로 3, 4년 후에 판매력의 우열이 결정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日本의 전체주유소 수는 약 6만개소, 특약점은 약 3만7천개소가 있는데, 과당경쟁으로 절반 가량이 적자경영에 허덕이고 있다. 따라서 유통부문의 체질을 강화시키지 못할 경우, 自社계열주유소의 감소는 불가피한 형편이다.

또 日本이 내년초부터 휘발유수입을 자유화함에 따라 앞으로 휘발유가격이 국제가격에 접근하여 인하될 경우 주유소경영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石油外收入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 생존할 수 없다는 강박관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